

I. 통상현안정보

□ 日 지재권 침해 제품품 통관보류 급증

- 日 정부의 知財立國 의지, 가시화
- 과거 거의 없던 특허권 침해품 적발도 빈발
- 우리나라, 작년 1~9월중 적발된 총 6,741건중 52% 차지

- 일본 재무성이 발표한 작년 1~9월중 지재권 침해제품 통관보류 통계에 의하면, 전년동기대비 30.0% 급증한 총 6,741건으로 집계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이중 절반 이상에 달하는 52%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음.
- 2004년 1~9월중 일본의 지적재산권침해 물품의 수입 통관보류 실적을 살펴보면, 전체 건수 6,741건에 적발 침해물품 수는 781,175점에 달하여 전년동기대비 적발 건수 면에서 30.0%, 통관보류 물품 수에서는 48.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국가별 수입 통관보류 적발건수를 살펴보면, 우리나라가 3,508건으로 전체의 52.0%를 차지하여 2003년도 WIPO 국제특허출원 랭킹 7위로 대변되는 세계적인 지적재산권 보유국으로서의 위상을 무색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음.
- 한편 자국내 지적재산권 보호면에서 전세계적으로 가장 열악한 것으로 알려진 중국은 작년 1~9월중 전체 적발건수의 35.0%에 달하는 2,357건으로 우리나라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적발 건수를 기록하였음.
- 그러나 최근 수년간 국별 적발건수 동향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2003년도에 점유율 60.8%에서 2004년 1~9월중 52.0%로 내려가는 추세를 보이는 한편 신장율도 2004년 1~9월중 전년동기대비 6.9% 소폭 증가하는데 그쳤음.
- 반면 중국의 경우 2003년도 점유율 22.0%에서 2004년 1~9월중 35.0%로 확대되고 증가율도 2004년 1~9월중 전년동기대비 139.3% 급증하여 대조를 보였음. 또한 중국은 작년 1~9월중 적발 물품 수 면에서는 전체 적발 물품수의 44.0%에 달하는 343,488점을 기록, 한국의 268,342점(34.4%)을 크게 상회하는 등 知財立國을 지향하는 일본으로서는 골칫거리가 될 것으로 예상됨.
- 한편 2004년도 1~9월중 수입 통관보류된 지재권 침해건수를 상표권, 의장권, 특허권, 저작권 등 지재권 권리 종류별로 분류할 경우 유명 브랜드 위조품에 의한 상표권 침해건수가 여전히 97.7%를 차지하는 가운데 과거에 적발 사례가 거의 없었던 특허권 침해 47건이 동 기간중 적발돼 주목을 끌고 있음.
- 상품에 무형의 기술로 체화되어 있는 특허권의 특성으로 인해 적발이 쉽지 않은 특허권까지 지재권 보호영역을 확대한 것은 일본 정부의 知財立國의 확고한 의지를 반증하는 것으로 풀이되며 향후 지재권 침해품의 유입에 대한 철저한 공세를 예고하고 있음.

- 품목별 수입 통관보류의 경우 건수 면에서는 가방(Bag)류가 작년 1~9월중 전년동기대비 26.8% 증가한 4,850건으로 전체의 50.9%를 차지하였으며 뒤이어 시계류 892건(9.4%), 열쇠고리 847건(8.9%), 의류 820건(8.6%)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중국에서 생산된 가방, 의류 등이 유명 브랜드를 부착한 후 우리나라를 경유하여 일본으로 유입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 일본 일반 소비자들의 한국산 상품에 대한 인식이 작년부터 불고 있는 한류붐과 삼성 등 한국 전자업체의 비약적인 성장으로 일취월장 개선되고 있는 가운데 유명브랜드 위조품 최대 수출국이라는 오명은 가급적 빠른 시일내 극복해야 할 과제의 하나로 판단됨.

< 일본의 2004년 1~9월중 국별 지재권 침해 통관보류 실적 >

(상단 : 침해건수, 하단 : 침해 물품 수)

국 별		2004년 3/4분기 월별 침해 건수			2004년 (1 ~ 9월)	전년동기 대비	점유율
		7月	8月	9月			
한국		409	421	377	3,508	106.9%	52.0%
		23,324	20,018	20,855	268,342	165.6%	34.4%
중국		308	251	314	2,357	239.3%	35.0%
		23,223	34,161	47,361	343,488	122.9%	44.0%
홍콩		30	24	40	327	69.9%	4.9%
		8,599	4,257	5,543	119,765	257.4%	15.3%
필리핀		44	20	28	281	145.6%	4.2%
		1,360	342	349	17,722	222.7%	2.3%
태국		9	16	16	157	104.0%	2.3%
		349	1,369	1,360	10,131	126.1%	1.3%
대만		1	1	4	23	127.8%	0.3%
		340	4	33	4,651	322.3%	0.6%
미국		0	1	2	20	125.0%	0.3%
		0	20	11	2,581	275.2%	0.3%
베트남		3	1	1	13	92.9%	0.2%
		588	88	42	1,261	199.2%	0.2%
이태리		4	0	0	10	50.0%	0.1%
		79	0	0	393	77.5%	0.1%
알바니아		0	0	3	8	400.0%	0.1%
		0	0	41	124	206.7%	0.0%
기 타		3	1	4	37	102.8%	0.5%
		721	120	4,105	12,717	68.1%	1.6%
합 계	침해건수	811	736	789	6,741	130.0%	100.0%
	침해물품 접수	58,583	60,379	79,700	781,175	148.4%	100.0%

(자료원 : 일본 재무성 세관국)

< 일본의 2004년 1~9월중 권리별 지재권 침해 통관보류 실적 >

(상단 : 침해건수, 하단 : 침해 물품 수)

지재권 종류		2004년 3/4분기 월별 침해 건수			2004년도 (1 ~ 9 月)	전년동기 대비	점유율
		7月	8月	9月			
특허권		6	7	1	47	-	0.7%
		6,220	10,149	2	85,121	-	10.9%
실용신안권		0	0	0	0	-	0.0%
		0	0	0	0	-	0.0%
의장권		0	2	4	32	400.0%	0.5%
		0	3,260	12,499	49,084	141.0%	6.3%
상표권		798	726	775	6,601	128.6%	97.7%
		48,393	46,728	61,046	503,582	129.1%	64.4%
저작권		8	1	11	74	132.1%	1.1%
		3,970	242	6,153	143,860	143.2%	18.4%
합계	침해건수	811	736	789	6,741	130.0%	100.0%
	침해물품 접수	58,583	60,379	79,700	781,175	148.4%	100.0%

(자료원 : 일본 재무성 세관국)

< 일본의 2004년 1~9월중 품목별 지재권 침해 통관보류 실적 >

(상단 : 침해건수, 하단 : 침해 물품 수)

품 목	2004년 3/4분기 월별 침해 건수			2004년도 (1 ~ 9月)	전년동기 대비	점유율
	7月	8月	9月			
가방류	579	549	541	4,850	126.8%	50.9%
	13,019	10,896	12,503	125,552	115.0%	16.1%
시계류	106	70	142	892	177.7%	9.4%
	5,612	1,368	4,605	40,110	232.3%	5.1%
열쇠고리	113	86	123	847	165.4%	8.9%
	1,186	1,147	1,372	60,021	779.9%	7.7%
의류	122	82	72	820	114.0%	8.6%
	7,333	12,735	27,778	155,088	87.6%	19.9%
휴대전화 부속품	32	30	42	337	142.2%	3.5%
	2,415	2,747	5,132	88,938	390.3%	11.4%
연초 및 깍연용구	22	37	33	301	168.2%	3.2%
	160	450	336	3,756	221.7%	0.5%
혁화류	35	32	35	260	91.9%	2.7%
	2,557	3,273	218	16,830	329.2%	2.2%
문구류	24	28	20	227	113.5%	2.4%
	137	290	54	1,454	49.8%	0.2%
벨트류	27	18	35	205	125.8%	2.2%
	252	121	2,270	3,502	248.5%	0.4%
기 타	89	82	75	790	149.9%	8.3%
	25,912	27,352	25,432	285,924	157.7%	36.6%

합 계	침해건수	811	736	789	6,741	130.0%	100.0%
	침해물품 접수	58,583	60,379	79,700	781,175	148.4%	100.0%

(자료원 : 일본 재무성 세관국)

(문의처 : 오사카무역관 이배우)